

## 나의 벗 마크 시더리츠

홍창성

(미네소타 주립대학 철학과)

거의 20년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친구로 지내 온 마크 시더리츠 교수가 나의 모교에서 정년을 맞게 되었다. 그는 내게 쓴 편지에서, 이제는 그가 전생처럼 느끼는 미국에서의 삶도 좋았지만 (It was good), 서울대에서 가르친 몇 년의 새로운 삶은 정말 멋진 것이었다고 (It was great!) 한 적이 있다. 떠나는 사람도 떠나보내는 사람도 섭섭한 마음을 가눌 길 없던 차에 마침 내가 경험한 마크와의 인연을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마크를 처음 만난 곳은 2004년 12월 보스톤이었다. 당시 본인은 미국철학회 아시아철학분과위원회 소속으로 미국철학회 동부지역 모임에 『불교철학에 있어서의 의식의 문제』라는 주제로 논문 발표 세션을 만들었고 사회를 보았다. 이때 네 명의 철학자들을 초청했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마크였다. 실은 듀크대학의 오웬 플러네이건교수의 추천으로 마크를 초청하고자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는 흔쾌히 응했고 또 초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 등을 쉽고 빠르게 처리해주었다. 일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처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미국철학회에 발표 세션을 만들려면 일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션의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해 제출하고도 2004년 12월까지는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출판사의 신간 철학서적 안내를 읽다가 마크의 *Personal Identity and Buddhist Philosophy: Empty Persons*에 대한 소개 글을 접해 그 책을 구해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내게 학문적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고대 인도불교의 가르침들을 그의 분석철학에서의 훈련으로 접근하고 철저히 분석 비판한 그 이전까지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철학이 마크의 저술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그래서 마크와 만날 날을 기대하며 이

책을 읽어 나갔고, 이때의 놀라운 기억들이 분석형이상학과 심리철학이 전공인 내게 결국 불교철학을 점점 더 깊이 연구할 동기를 주었다.

발표회가 시작되기 직전 첫 인상으로의 마크는 좀 차갑고 날카롭게 보였다. 접근하기가 조금은 꺼려지는 그런 인상이었다. 그러나 세 시간 후 발표회가 끝난 다음 그의 눈은 지금껏 내가 아는 마크처럼 따스함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서양에서 그토록 따뜻한 눈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그의 책에 서명을 부탁했을 때 그는 산스크리트어를 써가며 미국철학회를 통해 동서양철학을 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내가 고맙다고 친절히 적어주었다. 그리고 학회가 끝나고 당시 가르치고 있던 일리노이 주립대학으로 돌아간 후에도 자신이 참가해 본 미국철학회 아시아철학분과위원회 주최 발표회 중 내 것이 가장 좋았으며 고맙다는 메일도 보내왔다. 필자는 미국철학회를 위해 7년여에 걸쳐 열 개 이상의 세 시간짜리 발표회를 만들어 전 세계로부터 수십명의 철학자들을 초청해 보았지만, 발표회가 끝난 후 고맙다는 메일을 보낼 정도로 친절하고 따뜻한 철학자는 몇명 보지 못했다. 대부분 자기들이 뛰어나서 초청받았다고 생각하지 보수도 없이 이런 모임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고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음 번 마크를 만난 것은 2006년 4월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철학회 중부지역 모임에서 마크의 책 *Personal Identity and Buddhist Philosophy: Empty Persons*에 대한 「Author meets the critics」이라는 제목의 세션에서였다. 제이 가필드, 존 테버, 그리고 댄 아놀드와 같이 인도철학과 인도 및 티베트 불교철학에서 많은 주목받는 철학자들이 시카고로 날라와 마크와 세 시간 동안 그의 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필자는 사회자여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처지였지만, 마크를 비롯한 토론자들이 비록 비전공자였지만 질문에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나까지 토론에 참가시켜 주는 아량도 보여 주었다.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발표회가 끝난 후에도 점심을 함께 하며 세 시간에 걸쳐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결국 이 날 마크 책을 여섯 시간에 걸쳐 여러 명의 철학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한 셈이었는데, 마크는 시종일관 성실히 그리고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좋은 학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점심식사를 끝으로 각자 돌아갈 때 학회가 열리던 호텔 근처에서 마크와 우연히 나는 대화가 필자가 불교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철학을 개론으로 가르칠 만한 제대로 된 영어로 된 책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필자에게 마크는 그 다음해에 출판될 예정이었던 그의 *Buddhism as Philosophy*의 원고를 PDF 파일로 보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책이 출판되기도 전인 2007년 봄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이 PDF 파일로부터 인쇄해서 복사한 책들로 실험적으로 불교철학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는 무척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이 강의가 그 다음 학기부터는 본인이 가르치는 철학과의 정규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최근에는 필자 외에도 다른 한 교수가 불교철학 강의를 시작했다.

서울대에 마크가 알려지게 된 것은 2006년 여름 필자가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대를 방문하면서 이태수 조은수 교수 등에게 마크의 *Personal Identity and Buddhist Philosophy: Empty Persons*를 소개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다음해에 조은수 교수께서는 *Buddhism as Philosophy*의 원고도 보냈다. 그러다가 2007년 11월 말 마크가 서울대에서 일주일 세미나를 통해 이 책을 가르치게 되었고, 필자도 그의 세미나에 참석하려 귀국했었다. 재미있는 것은, 세미나 둘째 날이 끝난 후 필자가 마크에게 혹시 서울대에서 인도불교철학을 가르칠 용의가 있냐고 호기심으로 물어 보았더니 자신은 이미 계획되고 약속한 다른 일들이 있어서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는 넷째 날 밤 함께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를 관람한 후 나오면서 갑자기 내게 자신이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한글로 된 시험답안과 에세이들을 채점해야 하느냐고 물어 왔다. 이때 필자는 일주일 동안의 서울 체류 경험이 마크가 이미 세워 놓은 계획들을 모두 물리기도 서울대로 올 수도 있게끔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음을 눈치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해인 2008년 가을학기부터 마크는 필자의 후배들에게 필자가 경이롭게 접한 그의 철학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의 한국과의 인연이 참으로 신비롭다.

마크가 서울대 교수직에 지원했을 때 필자가 추천의 글까지 쓰게 된 동기는 그의 철학의 새로움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한국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인품을 가졌다는 믿음이었다. 2007년 4월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철학회 중부지역 모임에서 필자와 마크는 『환원과 미리올로지』에 대한 발표자와 논평자로서 만나 함께 세 시간을 토론한 후 그것도 모자라 미시간호숫가를 세 시간 반 동안 같이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때는 이미 2007년 11월말 서울대에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게끔 일정이 잡혀진 상태였다. 마크는 그 기회를 무척 감사히 여기며 행복하다고 했다. 그리고 내게 그의 아내인 에스터와의 대학시절부터의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미국 남자가 자신의 사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무척 드문데, 게다가 거의 스무 살이나 아래인 한국인에게 그런 ‘특권’을 주었음을 지금도 감사히 여긴다. 세 시간 반 동안 견느라고 실은 나는 발바닥에 물집까지 잡혔었는데, 마크는 피부가 민감해 햇볕을 싫어하는 나를 위해 햇빛의 각도에 따라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자신이 대신 햇빛을 받아 내게 그림자까지 드리워주는 친절함과 배려심을 보였다. 백인들보다도 햇빛에 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때 이미 필자는 학문적으로 보배로운 학자이면서도 인간적으로 이토록 따뜻한 사람이라면 서울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외국 철학자라고 믿게 되었다. 한국이라는 무척 다른 문화에서 인화를 중시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자신이 이룩한 새로운 철학을 계속 펴 나가려면 마크와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마크는 그 다음해인 2008년부터 서울대에서 강의하게 되었다.

2008년 가을 이후부터의 마크에 대해서는 서울대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 필자가 더 이상 글을 이어갈 필요는 없겠다. 지난 3년 반 동안 마크는 한국에 있는 서울대의 교수였지 미국에 있었던 필자의 동료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대와 마크는 서로를 만끽하면서 3년 반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다. 마크는 내게 캠퍼스에 새로 생긴 건물, 식당의 새 메뉴, 새로 생긴 작은 구조물이나 장식들, 새 학술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과 패션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을 알려 주면서 그것들에 기뻐하고 또 자신이 그 안에서 이런 변화들을 함께 한다는 것에 행복해했다. 그리고 필자는 마크가 행복했어 서울대 사람들도 그의 기

여에 기뻐하고 행복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마크가 떠난 후에라도 서울대가 학회 등으로 그를 다시 초청한다면 그가 서울대를 방문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마크는 자신이 영원한 서울대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마크가 서울대를 다시 찾을 날을 기대하며 글을 마치기로 한다.